

Erratum / 정오표

한약과 고농도 봉약침 병행요법으로 장기 재발 없이 호전된 음부사마귀 환자 6례 보고

허예인¹ · 이재현² · 권지수³ · 안지산³ · 정성훈³ · 정혜린⁴ · 홍순상⁵ · 이승욱⁶ · 강병수^{7,8} · 곽도원³

광진경희한의원 (1연구원), 윤빛한의원 (2원장)

광진경희한의원 (3원장), 윤빛한의원 (4연구원)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5학생), 경희늘품한의원 (6원장)

다이트 연구소 (7연구소장),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 교실 (8교수)

Combined Therapy of Herbal Decoctions and High-Concentration Bee Venom Pharmacopuncture for Condyloma Acuminata: A Case Report of 6 Patients with Long-term Recurrence-free Improvement

Yein Hur · Jaehyun Lee · Jisoo Kwon · Seonghun Jeong · Jeesan Ahn · Hyerin Jeong · Sunsang Hong ·
Seungwook Lee · Byeongsu Kang · Dowon Gwak

Gwang-jin Kyung-hee Korean Medicine Clinic, Yoonbit Korean Medicine Clinic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Kyunghee Neulpum Korean Medicine Clinic
Daeat Research Institute

Dep. of Ophthalmology, Otolaryngology & Dermat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본 학회지 제 39권 제 2호 《한약과 고농도 봉약침 병행요법으로 장기 재발 없이 호전된
음부사마귀 환자 6례 보고》에서

1. 저자의 ‘허예인¹ · 이재현² · 권지수³ · 안지산³ · 정성훈³ · 정혜린⁴ · 홍순상⁵ · 이승욱⁶ · 강병수^{7,8} · 곽도원³’을
‘허예인^{1*} · 이재현^{2*} · 권지수^{3*} · 안지산³ · 정성훈³ · 정혜린⁴ · 홍순상⁵ · 이승욱⁶ · 강병수^{7,8} · 곽도원³’으로 정정
합니다. (동등기여 표기)
2. 영문 저자의 ‘Yein Hur · Jaehyun Lee · Jisoo Kwon · Seonghun Jeong · Jeesan Ahn · Hyerin Jeong ·
Sunsang Hong · Seungwook Lee · Byeongsu Kang · Dowon Gwak’을
‘Yein Hur^{1*} · Jaehyun Lee^{2*} · Jisoo Kwon^{3*} · Jeesan Ahn³ · Seonghun Jeong³ · Hyerin Jeong⁴ ·
Sunsang Hong⁵ · Seungwook Lee⁶ · Byeongsu Kang^{7,8} · Dowon Gwak³’으로 정정합니다. (동등기여 표
기)
3. 영문 저자 소속의 ‘Gwang-jin Kyung-hee Korean Medicine Clinic’을
‘Gwangjin Kyunghee Korean Medicine Clinic’으로 정정합니다.

4. 본문 윤리적 승인과 ORCID 사이에

‘저자 기여도

모든 저자는 본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허예인, 이재현, 권지수는 논문 작성에 동등하게 기여하였다.’를 추가합니다.

5. 본문 고찰의 ‘반면, 본 연구는 모든 환자에서 추적기간동안 음부사마귀가 재발하지 않았으며, 가장 오랜기간 추적한 증례의 경우 치료 종료 후 4년 8개월까지 재발 없이 유지되어 한의 치료의 HPV의 재활성화를 장기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를

‘반면, 본 연구는 모든 환자에서 추적기간동안 음부사마귀가 재발하지 않았으며, 가장 오랜기간 추적한 증례의 경우 치료 종료 후 4년 8개월까지 재발하지 않았다.’로 정정합니다.

6. 본문 고찰의 ‘이러한 학술적인 한계와 더불어 봉약침 시술 시 발생하는 통증 관리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봉약침은 주입 시 강한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한의 임상 현장에서는 리도카인 등의 국소 마취제 사용이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향후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 국소 마취제를 병행한 통증 관리가 가능해진다면, 환자의 통증과 시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치료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향후 다수의 증례가 확보되고 체계적인 대조군 연구를 통해 음부사마귀에 대한 한의 치료의 통계적 유효성이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를

‘아울러 향후 다수의 증례가 확보되고 체계적인 대조군 연구를 통해 음부사마귀에 대한 한의 치료의 통계적 유효성이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로 정정한다.

7. 본문 요약의 ‘본 연구는 음부사마귀 환자 6례를 대상으로 봉약침과 薏苡仁을 가미한 한약 치료를 시행하였다. 6례 중 5례는 레이저 소작술 등의 선행 치료 후 재발한 환자였으며, 1례는 선행 치료 없이 내원하였다. 모든 증례에서 병변의 완전한 소실이 확인되었으며, 치료 종료 후 8개월에서 4년 이상의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재발은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한의 치료가 음부사마귀의 재발 방지에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한의사의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권 확대를 통한 통증 관리 체계가 보완된다면 임상적인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를

‘본 연구는 음부사마귀 환자 6례를 대상으로 봉약침과 薏苡仁을 가미한 한약 치료를 시행하였다. 6례 중 5례는 레이저 소작술 등의 선행 치료 후 재발한 환자였으며, 1례는 선행 치료 없이 내원하였다. 모든 증례에서 병변의 완전한 소실이 확인되었고, 치료 종료 후 8개월에서 4년 이상의 추적 관찰 기간 동안 병변의 재발이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한의 치료가 음부사마귀의 재발을 방지하는 유효한 치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로 정정한다.